



한전 김제전력지사, 꿈의 지역아동센터에 도서기증

한전 김제전력지사 사회봉사단(지사장 주경수, 노조위원장 이종수)은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아 노사합동으로 '꿈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어린이 도서 80여권을 전달했다.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인 '러브펀드' 기금을 활용해 진행된 이번 어린이 책 꾸러미 전달은 코로나19로 재택 학습이 많아진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또 김제전력지사는 어버이날에도 김제 관내 복지관에 기념품 지급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꿈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돼 책읽기에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경수 지사장은 "꿈과 희망을 가지는 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중화산2동 놀뜰어린이집, 어린이 날 생필품 기탁

전주 놀뜰어린이집(원장 전혜경)은 지난 4일 중화산2동 주민센터(동장 오재수)를 방문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기저귀, 물티슈 등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놀뜰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매해 어린이날 화장지, 옷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모아 전주영아원 등 주변의 복지시설에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설 방문이 어려워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전혜경 원장은 "작은 물품이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 어린이집에서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산학협력라운지' 개소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등지... 산학연 협력 실용화

전북대학교가 콘텐츠를 기반으로 비대면 소통이 가능한 LINC+산학협력라운지를 구축 4일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위치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새로 문을 연 산학협력라운지는 온라인 정보공유 플랫폼을 적용해 대학이 보유한 산학연 협력 역량을 실용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장소다.

대학 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위치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이용자들은 대학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주요 산학연 협력 성과와 프로그램, 사업 정보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지식정보센터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서는 기념 테이프 커팅과 코리아 중앙대일리 문소영 부장의 '끝없이 재창조되는 명화'를 주제로 한 개소 기념 특강도 이어졌다.

특히 LINC+사업단은 행사 전반을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 송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학습 및 학습자료조사 등



조용한 공간으로 인식되던 도서관이 이제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산학협력라운지를 통해 LINC+사업 및 학내 기관들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교내를 비롯해 지역의 대표적인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최미정 작가, 전주대에 성화10점 기증... '기독교복음 확산'

전주대학교는 4일 최미정 작가가 1억원 상당의 성화 작품 10점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작은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전시회'의 전시작, '영역 주권(Kring)',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Let Christ Be King)', '회심(Conversion: 열 처녀의 비유)' 등 10개 작품이다.

최 작가에 따르면 미술을 통해 기독교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성화 작가로 성경 구절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미지를 형상화해 그림을 독창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고전 성화의 틀에서 벗어난 세련된 색채와 구도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표현했다.

전주대는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 교육혁신의 공간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증받은 작품들을 전주대 캠퍼스 내에 상시 전시할 예정이다.

최미정 작가는 "기증된 10점의 작품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를 전주대학교에 보내주고 훈련시켜 탄생한 작품이다"며 "작품을 보는 모든 분들이 기독교 지성의 찬란한 업적을 느끼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예언자적 통찰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흥정길 이사장은 "과거에는 성경과 관련한 그림을 통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는 성화 등의 유물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최미정 작가의 활동과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4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은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포어(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여방!)를 릴레이 챌린지 형태로 전파하는 방식이다.

/김윤상 기자



농협 진안지부,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진 위로

진안군조합장과 농협진안군지부 정미경 지부장과 남해화학 김상복 지사장 관내 농협조합장 등은 지난 4일 '진안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접종에 헌신 중인 의료진에게 응원과 함께 위로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진안군 코로나 백신접종이 5월말까지 75세 이상 주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총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농협은 백신접종 의료진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정 지부장과 김 지사장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백신에 방접종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료진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동전주우체국,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

동전주우체국(국장 임인규)은 지난 4일 가정의 달을 맞아 호성보육원 어린이들에게 소망 선물을 전달하는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실시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는 호성보육원 내 설치한 소원우체통에 아이들이 소원편지를 직접 작성해 우체국에 전달하면 우체국이 희망선물을 구입해 전달하는 행사로, 이날 동전주우체국은 48명의 아이들에게 장난감 등을 지원했다.

임인규 동전주우체국장은 "우체통과 편지는 원래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번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ci.com 2004년 11월 23일 등록(약7기)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5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945-4113	중앙지사 010-9388-65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6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4227	임실지사 010-9942-2725
사선지사 272-9417	송촌지사 255-2404	안주지사 246-66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6645-9936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636-3767
	군산지사 010-6739-03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63-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신), 063-322-6668